

# 바로 믿고 바로 살자

Believe Right, Live Right

데살로니가전서 5:14-1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7월 31일 설교

<sup>14</sup>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sup>15</sup>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 노르웨이 참극

여러분도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한 주 전 금요일인 22일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른두 살 먹은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청년이 수도 오슬로에서 폭탄을 터뜨려 여덟 명을 죽인 다음 가까운 우퇴위아라는 섬으로 가 캠프를 하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총을 갈겨 어른과 청소년을 합쳐 예순 아홉 명이나 죽였습니다. 두 사건을 합치면 한 사람이 세 시간 만에 일흔 일곱 명을 죽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이 단일 사건에서 죽인 사람 수에 있어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그 기록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는 아닙니다. 조승희도 서른두 명이나 죽여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최고기록이지만 세계기록은 아닙니다. 우순경 사건이라고 혹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에 다니던 1982년 경남 의령에서 우범곤이라는 순경이 총이랑 수류탄을 들고 여덟 시간 동안 여러 마을을 돌면서 닥치는 대로 쏘고 터뜨리고 해 선일곱 명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게 최고 기록이었다가 지난주에 바뀌었습니다. 신기록 세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요. 세계기록에서는 얼떨결에 한국사람 이름이 사라졌지만 미국 기록에서는 제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갈수록 살벌해지니 누가 알겠습니까?

뉴스를 보고 읽으며 사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참 끔찍한 일입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소년이 채 피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쓴 총이나 폭탄도 다 사람이 그 좋은 머리로 연구해 만든 겁니다. 동물은 아무리 사나운 동물이라도 같은 종족을 이렇게 수십 마리씩 못 죽입니다. 사람 참 대단하지요?

사람은 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브레이비크를 언론에서는 극우파라 묘사했습니다. 오른쪽 극단이라는 말이지요? 오른쪽 왼쪽 다 사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와 더불어 이것도 사상입니다. 브레이비크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잘 했다 합니다. 무슨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또 뻔뻔하게 만듭니까?

## 오른쪽 왼쪽

사상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게 오른쪽 왼쪽입니다. 방향이지요. 영어로 디렉션입니다.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바탕으로 하는 동서남북이 기본인데 이 동서남북은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어디서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남북을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동서남북과는 달리 내가 중심이 되어 생기는 방향도 있습니다. 위아래도 있고 앞뒤도 있고 또 오른쪽 왼쪽도 있는데 이 방향은 주관적입니다. 서 있으면 머리 쪽이 위지만 물구나무를 서면 위아래가 뒤집어지고 앞뒤나 좌우는 어딜 보고 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이 말 안 한 상대성원리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북쪽을 향한 때의 동쪽과 같게 된 쪽”이라 한 것도 있고 “동쪽을 향하였을 때 남쪽에 해당하는 방향”이라 한 것도 있습니다. 영어 사전은 우리말사전처럼 설명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심장이 있는 쪽의 반대쪽”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사상을 가리키게 된 건 프랑스대혁명 (1789-1799) 때부터였습니다. 그 때 프랑스 의회에서 구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한 그룹이 의장석 오른쪽에 앉고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자코뱅 당원들이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왼쪽은 급진 개혁파를 가리키고 오른쪽은 보수 세력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급진 좌파는 우선 기존 질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걸 뒤엎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을 보수파 또는 우파, 바꾸자 하는 사람을 좌파라 부르게 되었는데 산업혁명을 겪을 무렵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바뀌야 된다 하던 사람,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또 좌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진 개혁파가 왼쪽에 앉았다 했는데 누가 볼 때 왼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본당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동쪽이 오른쪽이고 피아노가 있는 서쪽이 왼쪽입니다만 여러분이 보실 때는 반대가 됩니다. 자코뱅 당이 의장석 왼쪽에 앉았다 했는데 의장이 볼 때 왼쪽입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볼 때 왼쪽입니까? 제가 한참을 뒤졌는데도 이걸 못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설명할 때 늘 헷갈리지요. 세 사람이 사진에 있는데 가운데 김씨가 있고 양쪽에 한 사람씩 있다 칩시다. 김씨 오른쪽이 박씨다 하면 김씨 오른팔이 있는 쪽이 박씨라는 말인지 아니면 사진의 오른쪽 그러니까 김씨 왼팔 쪽에 있는 사람이 박씨라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야구장에서도 오른쪽 왼쪽이 헷갈립니다. 야구장에 가면 외야수 가운데 우익수 좌익수가 있지요. 어느 쪽이 우익이고 어느 쪽이 좌익입니까? 공격자 입장에서 봐서 오른쪽을 우익, 왼쪽을 좌익이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우익수가 왼쪽을 맡고 좌익수가 오른쪽을 맡는 형국이지요. 오른쪽 왼쪽은 말은 정반대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누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방향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럽의 현황

이번에 엄청난 살상을 저지른 브레이비크는 이슬람에 먹혀가는 유럽을 구원하려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했습니다. 사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중동 사람들이 유럽으로 계속 이민을 해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삼백만 명이나 되고 영국에도 백오십만 정도가 있습니다.

브레이비크가 사는 노르웨이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체 인구가 오백만인데 그 가운데 80퍼센트가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 국가 같지요? 그렇지만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은 인구의 2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등록교인이 80명인데 주일 교회에는 두 명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목사하고 장로만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백만 인구 가운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겨우 십만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 하나보다 훨씬 적지요.

거기에 비해 이슬람교인은 십오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록교인 수하고 출석교인 수가 늘 같습니다. 숫자도 많지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민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나 이라크 터키 등지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유럽 다른 나라 출신 이민보다 수는 적지만 거의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 이슬람 인구가 급히 늘는 게 당연하지요.

거기다가 이슬람은 종교가 생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의 여러 규정도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라 해야 됩니다. 샤리아라 부르는데 결혼과 이혼 같은 사회생활, 돈을 꾸고 꿰주는 경제생활 등도 이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가 아닌 경우 이 법이 그 나라의 법하고 안 맞습니다. 이슬람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투자를 받으려면 이자를 못 받아 생기는 빈자리를 이자 아닌 다른 방법으로 메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을 좀 고쳐야 되고 몇 달 전 한국에서도 이슬람채권법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교회가 반대하는 통에 못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야 아랍권 투자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슬람 교인들이 수백만씩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이슬람교인들은 이혼 문제나 금전 문제 같은 걸 사회 법정이 아닌 이슬람 법정에서 몰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슬람법은 지키면서 정작 나라의 법은 무시하니 사회 전체가 혼란해집니다. 이런 관행이 영국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하면 영국교회의 대표자인 캔터베리대주교가 영국도 샤리아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영국 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겠다는 말이지요. 참 심각합니다.

## 극우 극좌

브레이비크는 이슬람의 이런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유럽을 이슬람의 도전에서 구원하려고 이번 일을 십 년 동안 준비해 실행했다 합니다. 옛 유럽을 회복해야 된다 했습니다. 기독교만 믿던 유럽, 이슬람이 밀려오기 전의 유럽, 다른 인종이 이민 오기 전의 유럽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꿈꾼 유럽이 되려면 적어도 백 년 이상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노르웨이는 입헌군주국입니다. 왕도 있고 민주주의도 하는데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기로 세계 최고입니다. 영국 시사기관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67개국 자료를 가지고 민주주의 랭킹을 매겼는데 노르웨이가 일등입니다. 꼴찌는 자랑스러운 우리 겨레입니다. 북한 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는 다른 통계에서는 우리가 일등을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남한이 전자정부 부문에서 몇 해째 일등입니다. 일본이 이등, 싱가포르가 삼등입니다. 하여간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기록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있고 민주주의도 잘 된 나라가 집권당이 지금 노동당입니다. 2005년부터 집권하고 있는데 당 이름이 말해주듯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익입니다. 좌익이라고 무조건 바꾸자 하는 건 아니지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함께 어울려 잘 살자는 게 좋은 뜻에서 좌익입니다.

노르웨이가 민주주의로 세계 일위인데 경제로는 세계 이등입니다. 지난해 일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미니국가인 룩셈부르크가 일등, 노르웨이가 이등입니다. 규모를 갖춘 나라 가운데서는 일등이지요. 의료 혜택은 온 국민이 무상으로 받고 다른 복지사업도 최고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니까? 천연자원이 우선 풍부합니다. 또 주요 기업은 거의 정부가 소유해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생산성도 세계 최곱니다. 대기업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운영도 잘 된다 하니 미국 공화당이 들으면 기절하겠지요?

노르웨이를 일등 국가로 만든 가장 중요한 원천은 사회주의적 이상인 평등주의입니다. 최고경영자와 말단사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도 부자 나라 가운데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사회주의니까 이거 좌익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린 사상입니다. 그러니 좌익이 그 사회에서는 우익인 셈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이민으로 많이 받아주고 있는 바로 그 사회입니다. 브레이비크는 이런 사회 현실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익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두는 게 좌익이고 바꾸자 하는 게 우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왼쪽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 오른쪽이 상대가 보기에는 왼쪽이니까요. 아인슈타인도 모른 상대성원리입니다.

## 기독교 근본주의

오른쪽 왼쪽 논란과 더불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또 한 가지는 노르웨이 경찰당국의 발표였습니다. 경찰청 차장이라는 사람이 범임을 체포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사람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슬람교인 가운데 근본주의자를 자처하면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사람도 테러리스트라 부르지 근본주의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잘못은 미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1970년대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 미국 언론이 그 사람들을 이슬람 신조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샤리아처럼 사회생활에서도 이슬람 원리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강제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이고 그게 내부적으로는 교리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주거나 심하면 죽이는 방식으로 또 외부적으로는 이슬람 아닌 모든 세력과 싸움을 벌이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주의라는 말은 특정 종교가 제 원리를 고집하면서 다른 종교나 세속 사상은 철저히 억압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그 종교의 원리를 정착, 확산시키려고 하는 원리를 가리키는 참 이상한 말이 되었습니다. 브레이비크를 기독교 근본주의자라 부른 것도 같은 차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주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근본주의, 영어로 판더멘털리즘이라는 말은 백 년 전쯤 미국 교회에서 생긴 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러니까 판더멘털을 지키자 하는 운동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판더멘털을 믿는 사상이라 해서 근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때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규정한 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오류가 없다. 둘째,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다. 넷째,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다섯째,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떻습니까? 브레이비크는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근본은 안 믿고 그냥 기독교 문화를 수용한 문화적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누가 근본주의자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걸 확실하게 믿는다 하는 사람이 근본주의자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는 안 믿는다고 감옥 보내는 강압도 없고 이것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겠다 하는 투쟁도 없습니다.

## 오른쪽이 옳은 쪽?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깁니다. 거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했습니다. 언론이 교회를 비판하면 우르르 달려가 데모도 하고 심지어 건물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단군숭배를 반대한다 하면서 단군상 목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테러도 하겠지요. 사람도 죽일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방법이 잘못일

때는 바로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바로 믿기 위해 죄를 짓는 거니 말이 안 되지요.

몇 달 전입니까? 정부에서 아랍권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쿠크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큰 교회 목회자들이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이슬람에 특혜를 주는 거라 하고, 그렇게 특혜를 준 돈이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복음의 다섯 가지 교리를 굳게 믿는 교회가 그 믿음을 널리 전하는 건 좋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당연히 가져야 할 사회적 권리를 무시하고 밀어내는 것,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 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다섯 가지 근본과 무관한 근본주의자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혈과 육의 시비를 벌이니 근본주의자는 과격 폭력 집단이라고 착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는 근본주의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오른쪽 왼쪽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오른쪽이 바른 쪽이라는 오해입니다. 말은 그렇지요. 오른 쪽이 옳은 쪽이라는 말에서 나와 바른 쪽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자도 오른 우 자는 위 우, 강할 우도 되지만 왼 좌는 그를 좌, 곧 잘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도 라이트가 옳다는 말도 되고 오른쪽도 됩니다. 독어 불어 등 서양 언어가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오른쪽이 꼭 올바른 쪽이라는 뜻은 없지만 늘 좋은 쪽은 오른쪽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구원받은 양은 목자의 오른쪽에 저주를 받은 염소는 목자의 왼쪽에 모으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른쪽은 구원의 자리, 왼쪽은 버림받은 자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른쪽 왼쪽 개념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우익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좌익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좌익 우익은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 왼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말이 같다 보니 뜻도 같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좌익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빨갱이고 그래서 마귀하고 같다고 말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빨갱이는 물론 문제지만 빨갱이는 왼쪽뿐 아니라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우신다고 우익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뉴 라이트에 가입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염소가 왼쪽에 있었다고 좌익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도 구체제를 옹호하지도 말고 사회개혁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 사람이 먼저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리를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로서, 우리가 믿는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혁명을 반대합니다. 개혁은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혁명도 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지는 그런 혁명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혁명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바꾸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를테면 프랑스대혁명 같은 그런 뒤집어엎는 그런 사건은 반대합니다. 이런 혁명이 극단적으로 가면 구일일처럼 엄청난 테러가 되고 또 브레이비크처럼 살인행위도 스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혁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이 나고 자본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단점인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지요. 잘못 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못이고 제도만 고치면 잘 될 거라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너도 동무 나도 동무가 되어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 했는데 권력을 잡은 동지들이 탐욕을 부려 당 간부들만 잘 살고 대부분 국민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은 국민대로 놀아도 배급이 나오니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하고 다시금 자본주의가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해 보니 아니더라 깨달은 건 좋은데 그 실패한 공산주의 실험 하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오른쪽도 왼쪽도 답이 아닌 줄 알 수 있는데 그거 하나 확인하자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든 부르주아 혁명이든 혁명은 일단 반대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제도는 다 그렇게 약점을 가지는 반면 제도의 약점을 보완한 나라들은 모두들 일도 열심히 해 성장도 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분배도 잘 해 너도 나도 다 잘 사는 복지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도 그렇지만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지금도 왕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프랑스처럼 뒤집어엎은 나라보다 점진적인 개혁을 해 발전한 나라가 훨씬 더 잘 살더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든 가운데 둘만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회라면 일본처럼 경제적으로는 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황폐한 사회입니다. 불쌍하지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답이 아니지만 세상의 민주주의나 경제 같은 걸로 일등 이등을 따지는 것도 우리 진짜 근본주의자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사랑이 으뜸

사람들이 오해하니 근본주의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지는 맙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16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본주의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습니다. 내 오른팔은 상대방이 볼 때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입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꼭 하나 차이가 있다면 사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평등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가장 잘사는 나라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져 천국마저 부럽지 않게 되었으니 그것도 비극입니다. 브레이비크가 수십 명을 죽인 것도 비극이지만 노르웨이의 교회를 볼 때도 가슴이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나 샤리아는 사실 큰 숙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슬람 교인이 많아져 샤리아를 하겠다 하면 반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숙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일일을 일으킨 이슬람 사람들도 잘못이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는 이스라엘도 잘못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죽고 죽이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잘못입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싸워 많이 죽은 북아일랜드는 더 부끄럽지요.

일흔 일곱이나 되는 사람이 사라진 노르웨이의 참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죄로 물든 사람의 위험함도 생각하고, 사람을 그런 위험으로 내모는 오른쪽 왼쪽 사상도 조심하고, 성경은 오직 하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남 위에 군림하려 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낮은 곳까지 오신 주 예수를 본받아 더욱 낮아지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진짜 근본주의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